

금주의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씩 기도합니다.

1. Vision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의 목회자에게 복 주옵소서!
3.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복 주옵소서!
4.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5. 제자·사역훈련 위에 함께 하옵소서!
6. 지교회 산포도밍고장로교회 위에 복을 주옵소서!
7. 우리가 듣는 선교지를 복 주옵소서!
8. 땅끝선교지 토요학교를 복 주옵소서!
9. 기드온의 삼백용사를 주옵소서!
10. 바나바 사역 위에 함께 하옵소서!
11. 순모임에 복 주옵소서!
12. 엔젤프로젝트와 함께 하옵소서!
13. 유아선교원과 Children Mission Center에 복 주옵소서!
14. 어와나에 복 주옵소서!
15. English Ministry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16. 스포츠 선교와 음악 선교에 복 주옵소서!
17.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옵소서!
18. 교회 건축 위에 복을 주옵소서!
19. 사업체 심방과 가정 심방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 중보기도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 안내

장년예배	주일학교 예배
주일 1부 7:30 A.M.	유아부
주일 2부 9:00 A.M.	유치부
주일 3부 11:30 A.M.	초등부 1부 9:00 A.M.
주일 저녁 6:00 P.M.	중등부 2부 11:30 A.M.
수요 찬양 8:00 P.M.	고등부

Young Adult 1 예배 1:30 P.M.	조이채플 9:00 A.M.
모임안내	영어예배(EM) 11:30 A.M.
	2:00 P.M.

주일 Young Adult 1 모임 1:30 P.M.	
주일 Young Adult 2 모임 1:30 P.M.	
중등부 금요모임 5:00 P.M.	EM 금요모임 7:00 P.M.
고등부 금요모임 6:30 P.M.	

기도회 안내

토요전교인 새벽기도회 5:30 A.M.
중보기도회 (매달 4번째 주일저녁) 6:00 P.M.
새벽기도회 (월-금) 5:45 A.M.

성경공부

여자 제자훈련 화_ 10:30 A.M	7:30 P.M.	주일 2:30 P.M.
남자 제자훈련 화_ 7:30 P.M.		
사역자 훈련		

선교/교육

토요한글학교	토 9:00 A.M-12:00 P.M
KPCB유아원	월-목 9:30-11:30 A.M.
KPCB Children Mission Center	월-금 9:00 A.M.-6:00 P.M.
Awana	수 7:45-9:20 P.M.
성경통신학과	

2월의 행사

4일	주 일	엔젤프로젝트 보고회
18일	주 일	당회
18-21일	주일-수	고등부 겨울 수련회
23-24일	금-토	중등부 찬양팀 수련회
25일	주 일	중보기도회, 세례자 공부 시작

2월 안내위원

	1부	2부	3부	수요찬양	주일저녁
안내	김미정 신희섭	김인원, 조희경, 김애스, 김미옥	이지영, 박선경, 서선숙		
헌금	김광석	이명식	이미희	이소연	조영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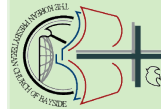
3월 안내위원

	1부	2부	3부	수요찬양	주일저녁
안내	김미정 강다운	이명식, 이세라 정순천, 박추리	김승미, 이미희, 고효경, 김숙자		
헌금	안명희	유태홍	팽종익	Joshua Kim	유한나

섬기는 분

담임목사 이종식	중국 선교회 (송영재 목사)
부목사 정도영 정승호	뉴욕교회
조이채플 담당목사 이소형	기독교일보
미디어찬양스포츠담당목사 김용현	단비TV
협력목사 조재승	국제 장애인 협회
전도사 이대보라 임소자 이은혜	USAmen.net
김지영 정미경 오세웅	기독교뉴스
김현정 최현숙 박글로리아	세계복음뉴스
장로 이병욱 이종성 정영찬	미주크리스천신문
곽충환 박수복 이찬우	뉴욕밀알장애인선교단
신인목 김우신 김철연	복음뉴스
박범수 정연태 이상규	청소년센터
송영기 서근수	한국 칼넷
원로장로 전용원	조이장애인협회
은퇴장로 김정성 지건재 유명철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이종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명예장로 박명남	싱가포르 (안다니엘 선교사)
지휘 안상균 권민아 오수현	우간다(김성환 목사)
유현호	인도네시아(함춘환 목사)
피아노 이효정 지소운 권민아	도미니카 UNEV대학 (여자훈련세미나)
한성해 김현아	까바조 나교회 (루이스 목사)
울켄 한성해 김원형	산포도밍고장로교회 (지교회)
통역 이영숙 주경아	도밍가 선교사(도미니카)
사무장 한성해	마우라 목사(도미니카)
	와스카르 목사(도미니카)
	윌리안스 목사(도미니카)
	박시영 선교사(도미니카)

베이사이드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ayside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Web: nybaysidechurch.com, Tel: 718) 229-0858



그리스도의 종인이 되는 교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Bayside
 설립일 1981.1.6, 설립기법일 1981.8.25

- 신앙표지
1. 하나님 계일 주의 1. 말씀 계일 주의 1. 행함 계일 주의
 2. 교우하는 교회
 3. 선교하는 교회
 4. 구제하는 교회
1. 믿음의 선포하는 교회
 2. 교우하는 교회
 3. 선교하는 교회
 4. 구제하는 교회



2024. 2. 18 제33권 7호

담임목사_ 이종식 PASTOR_ David Lee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인도_이종성장로
 2부 오전 9:00 인도_장영찬장로
 3부 오전 11:30 인도_곽충환장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찬양팀과 함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 Hymn	205장	다함께
기도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행. 12:1~19	인도자
찬양 Praise		1부:임마누엘, 2부:합월루아, 3부:시온
설교 sermon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종식 목사
찬송 Hymn	209장	다함께
헌금 Offering	2-3부: 뮤직미션 기타교실	다함께
광고 Announcement		이종식 목사
* 찬송 Hymn	주기도문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종식 목사

* 기립표시

교회성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 마. 28:19

다음주일예배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1부 정영찬 장로 2부 곽충환 장로 3부 박수복 장로 "성도가 칭찬을 받을 때 취해야 할 행동은 이것입니다." 행. 12:20-25	경배와 찬양 기도 성경봉독 찬양 설교	오세웅 전도사 정도영 목사 왕상. 13:1-10 여호수아 찬양대 "하나님의 사랑" 정승호 목사 328장	전교인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용현 목사 이종성 장로 말. 3:1-6 살롬 찬양대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김용현 목사 359장
중보기도회 경배와 찬양: 김용현 목사 기도: 엄현숙 권사 찬양: 한나 찬양대 설교: 이종식 목사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일" 왕상. 13:1-10	찬송 헌금 광고 주기도문	김용현 목사 정훈희 집사 렘. 21:1-14 살롬 찬양대 "생명의 길과 사랑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이종식 목사 262장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김용현 목사 이종성 장로 말. 3:1-6 살롬 찬양대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김용현 목사 359장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오늘 본문은 스테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으로서 오늘날 튀르키예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렛인이나 갈릴리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명칭이었습니다.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공식적인 명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제대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란 원어를 보면 그 뜻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기독교인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문 글자를 보면 명확히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기’는 ‘터’를 의미하고 ‘독’은 땅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기를 의미하는 ‘터’라는 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고전. 3장 10, 11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가를 조절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인 터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는 기초를 의미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독’을 의미하는 땅아들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나들이 되게 하려 하셨이니라” 이 말씀에서 만나들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만나들 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삶을 건설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와, 놀랍지요? 저도 기독교인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감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만나들 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 삶을 건설하는 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하게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떡을 1.가지사(take) 2.축복하시고(bless) 3.떼어(break) 4.주셨다(give)라는 동사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주장하기를 그 네 동사 안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동사 안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 동사

가 떡을 가지사 라는 take라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이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을 택하듯,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동안 이런 특권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한번은 죽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것은 가장 감격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제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 시간에 저에게 이런 감격의 말을 눈물을 글썽이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님이 이민 오게 하사 모두 다 믿는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식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선택받아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 감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새 나이를 먹어 가면서 그런 어머니의 감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수술을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맹장도 떼어 내고 쓸개도 떼어 내고 심장엔 스텐트를 두 개 꽂고, 얼굴 안면 한쪽이 마비가 오고 이러면서 내 육신의 장막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선조들처럼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하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감격을 항상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확신 속에 감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히브리서 11: 35-38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 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들로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38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선택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선택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환란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택함받은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헨리나우웬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두 번째 동사로 축복한다는 동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에 자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펍박 가운데서도

순	순장	재적	현금
47	최영아	8	
48	이소연	7	
49	조혜영	6	
50	김정완	7	
51	민지선	7	
52	이혜정3	8	20
53	박효선	8	
54	임유미	8	
55	이지아	9	5
56	박체조	8	20
57	유현자	8	82
58	오정에	6	15
59	류영희	6	25
60	최정옥	7	20
61	박현수	6	25
62	오예인	5	30
63	이상순	5	20
64	김은희	6	20
65	김순옥1	6	25
66	홍미영	6	25
67	엄현숙	5	10
68	윤선자	6	20
69	이미희	5	
70	김미경	6	
71	윤효순	5	
72	유한나	6	
73	박은영	6	50
74	박현실	6	7
75	이현주	7	
76	최명숙	7	
77	김인옥	7	20
78	전혜준	7	25
79	곽상은	8	45
80	한성혜	9	20
81	정송희	8	
82	박영주	8	
83	박미현	8	
84	김하나	9	
85	김민	8	
86	조덕형	3	
87	박태영	7	
88	이정현	4	
89	이지혜	7	
90		10	
91	이데보라	12	
92	김한근	11	

[감사헌금]◆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하나님 감사드려요.◆수술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한 주 동안 저와 가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합니다.감사합니다.주님!◆범사에 감사합니다.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늘 한결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주님 사랑합니다.◆기타반 수업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되게 하여주소서.◆아버지 감사합니다.나는 다 이루었다가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면 우리도 끝까지 갔다를 외쳐야 합니다.삶에 지표를 일깨워 주시는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결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하나님 감사합니다.◆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두 딸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축복하소서.◆주님 감사합니다.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이 아들의 마음을 다 낳게 하시고 또 큰손녀 딸의 길을 열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오직 기도,찬양,감사,순종하는 자녀를 되게 하옵시며 이제 권사님 완쾌시켜 주셔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사업 장소에 안전과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부모님과 가족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우리 아이들 항상 주님의 품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범사 감사.◆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기도 응답에 감사드립니다.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사랑의 주님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응답하여 주세요. 아멘!◆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범사에 감사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지금, 이시각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저의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범사에 감사합니다.고난 속에서도 불드시고 돌보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족 자녀들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항상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친히 간섭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우리 가족 아내의 병고를 회복하게 하옵소서.◆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매일 감사가 넘침을 감사드립니다.◆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하나님은혜에 감사합니다.◆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오니 감사합니다.◆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범사에 감사합니다(6).범사에 감사드립니다(6). [백만 영혼을 위한 책 헌금]◆엔젤 프로젝트를 통해 모은 금액을 백만 영혼을 위한 책 헌금으로 드립니다.◆새로이 거듭나는 영혼들 감사하며 감사합니다.◆책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책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생일 감사헌금]◆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하며 남은 생애도 능동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애의 영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옵소서.◆두 아들의 생일 감사합니다.앞으로도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주길 기도합니다.◆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강건함을 지켜주소소서!◆아들의 6번째 생일 감사합니다.지금까지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모임 헌금]◆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순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자녀들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소서.◆순모임 감사합니다(2).◆61순,권사님들 건강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심방 감사헌금]◆심방 감사헌금을 드립니다.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어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심방 감사헌금. [심일조]◆직장과 사업장이 몰든동산 같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일을하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수속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하나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항상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Lord thank you for your provision I can't survive in this world without you and I wouldn't want to live in this world. Without you. ◆감사합니다(2).◆범사에 감사합니다(2).◆감사드립니다(2). [일반헌금]◆주님!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양식 선교헌금]◆딸의 노력과 수고에 응답하시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셔서감사합니다.◆엔젤프로젝트,쌍사육 헌금으로 드립니다.◆줄수 있음에 감사합니다.◆영과 육이 강건한 생명을 되게 하소서.◆하늘 양식 헌금을드립니다.◆많은 어린 섬려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어린아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 많은 주님에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화환헌금]◆그리스도 의 향내 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온라인헌금]◆심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말 바꾸지 말기”

이종식 목사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말을 바꾸는 것이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어저께 한 말하고 오늘 한 말이 다른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해서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한 순간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언제나 너무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신임을 잃었기 때문이고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살면서 결단한 것이 있다.

한번 한 말은 바꾸지 말자고...

물론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임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바꾸면 안 된다.

최소한 실수로 말했다면 잘못을 구하고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다른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을 믿는다.

말 바꾸지 말자!

순모임 보고

순	순장	재적	헌금
1	최동호	7	
2	이건희	6	
3	서근수	6	
4	John Pak	5	
5	전용원	10	20
6	이병욱	6	
7	곽중환	9	
8	이찬우	8	5
9	신인목	7	
10	김기성	8	
11	Joshua Kim	7	
12	조강섭	7	
13	박연범	8	
14	박재만	7	
15	정운희	9	
16	정덕청	7	20
17	이종성	8	
18	강상원	6	15
19	이상규	7	10
20	조한고	7	30
21	문이준	6	20
22	한학진	7	
23	박범수	7	10
24	양오성	8	
25	정연태	9	
26	김용준	8	
27	오익찬	9	
28	최영희	6	
29	안명희	5	
30	김명숙2	5	
31	손진선	6	
32	Laura Pak	5	
33	최복덕	4	
34	최미순	10	18
35	곽복남	7	17
36	최서희	9	10
37	박연숙	7	20
38	왕춘희	5	25
39	박광자	5	15
40	최은석	5	20
41	이상숙	5	10
42	곽석순	5	20
43	서애경	4	10
44	최미라	5	20
45	이명식	6	
46	신선영	6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언제나 증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그런 그들을 미친 자들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꾀박당함을 통해 흠어져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성도들은 환란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요새 제가 월요일에 심방을 다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의 간증이 무엇이나면 모든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방 중에 너무도 은혜를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집을 위해 평안을 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축복하고 또 축복할 때에 그리스도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축복대로 그곳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은행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이 동네는 주민들이 까다로운 동네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이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건 축하는 데 많은 방해 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 동네의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잘 돕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들어온 후에 이 동네가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확신하기는 이 동네가 23년 전하고 전혀 다른 동네가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동네를 축복하며 지내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네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길은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므로 안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데 저주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어느 여인이 앞 차가 서서히 노란 신호등 앞에서 멈추자 그 여인은 앞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화가 난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네가 빨리 지나갔으면 나까지 지나갔을 것인데 멈췄다고 하면서 마구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교통경찰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 차를 이리저리 보더니 나와 같이 경찰서로 가져고 하더니 그 여인을 잡아 유치장에 넣는 것입니다. 길에서 욕 좀 했다고 감옥에 넣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참 후에 경찰이 오더니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고 하면서 나는 당신 차가 도난 차인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차 뒤에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까” 라는 스티커를 붙인 것을 보는 순간 당연히 당신이 차 주인이 아닌 줄 알았다.” 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이 말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세 번째 동사인 ‘떼어’ 라는 break라는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떼어내듯 희생적인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희생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귀한 열매를 거두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래 선교 초기 한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활동을 하며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1902년 6월11일, 아펜젤러를 태운 일본 국적의 배가 군산 앞바다에서 인디애나 주로 항하고 있었는데 같은 일본 국적의 배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면서 과선되었는데 그때 아펜젤러는 혼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함께 탄 한국인 비서와 한 여학생들을 깨워 구출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펜젤러는 혼자 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힘쓰다가 44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애석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그렇게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희생을 통해 그가 세운 배제 학교와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헌신된 인재들이 배출됐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보면 이 시대에 왜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에 희생이란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 희생이 없으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희생은 믿음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희생이 요구될 때 감당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 시 나오는 네 번째 동사는 ‘주다’ 라는 give라는 동사입니다. 이 뜻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령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귀한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는 일을 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진리 중 하나는 줄때 열매가 있고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교회는 목회 정체를 교회의 재정적인 유익을 위해 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계획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줄 알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정책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는 일을 해 왔습니다. 여를 캠프를 열어 어린이를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비싼 약을 가져가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눈 안 보이는 사람들 위해 안경도 만들어주었습니다. 한의로 침도 나 주고요. 또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당 지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매주 4,500명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썸을 이미 5만 권을 출판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점점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력이 생겼고 물질을 생킨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성찬을 뱉 때 하신 것처럼 자신이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축복하고 희생하고 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 1.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2.금년도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3.오늘은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_장소: 제2 교육관 2층 _시간: 오후 2시 30분
- 4.2월달 중보기도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온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5.2024년 기관장 회의가 3월 10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제2교육관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각기관장들께서는 기관장 회의에서 나눌 각 기관 안건을 로비에 준비된 종이에 작성하시어 3월 3일 까지 정도영 목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6.세례 및 입교식이 3월 24일(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로비의 등록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_등록기간: 3월 3일(주일)까지 _문의: 각 부서 교역자
- 7.교회에서는 본당 엘리베이터가 다음과 같이 운행 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_시간: 3부 예배 후 부터 1시 50분까지 _담당자: 박글로리아 전도사, 안내부(한정은 권사, 이지영 집사, 박선경 집사)
- 8.봄학기 유아원이 3월 11일부터 6월 13일(월-목)까지 진행 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_시간: 오전 9 시 30분~11시 30분 _모집대상: 18개월~3살(3K 가지전) _등록 및 문의: 718.229.0858(교회), 347.394.9932(최현숙 전도사)
- 9.2024년도 여름캠프(Summer Camp)가 7월 8일(월)~8월16일(금)까지 6주간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로비에 준비된 등록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_대상: K-5th Grade _문의: 이은혜 전도사, 오세웅 전도사
- 10.2024년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7/21(주일)~7/29(월))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의료선교, 안경선교로 섬기실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의 등록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_선교회비: \$1,200불(40명 선착순, 그 이후는 \$200불 추가) _첫 모임: 4월 7일(주일) _문의: 정승호 목사
- 11.베이스이드장로교회 찬양팀에서 키보드,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및 싱어를 모집합니다. _문의: 김용현 목사
- 12.2024년 1월 7일~6월 30일까지 신명기 28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암송대회를 개최하고 1월부터 5월까지 신약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13.매주 수요일에는 에레미야서를 강해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읍기가 강해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14.2024년도에 비즈니스와 가정에 담임목사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2024년도 1월 1불 선교 건축헌금을 동참하실 분들은 현관에 있는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2024년도 <헌화헌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헌화담당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교회에서는 문서 선교의 일환으로 책 “거침없는 기적, 거침없는 믿음의 삶”을 스페니쉬와 영어로 출간하였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_문의: 교회(718.229.0858), 입소자 전도사(646.644.6160)
- 18.교회에서는 구제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지역의 어린이들을 빵으로 섬기는 Heavenly Bread Project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eavenly Bread Project를 위한 헌금은 준비된 특별봉투(하늘양식 선교헌금)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당회에서는 교회 설립 32주년을 맞아 문서선교를 통해 도미니카와 중남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제1차로 백만권의 책을 만들어 보급할 것을 결정하고 그 명칭을 '백만 영혼을 위한 책헌금'으로 정하였습니다. 문서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당회에서는 도미니카에 어린이들을 위한 미션 센터와 제자훈련을 위한 Seminar Room을 건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온 교회는 벽돌헌금을 한 장당 5불로 계산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어린이 구원과 제자들이 온 중남미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방 봉사 71, 72순	설거지 봉사 15, 18순	분리수거 봉사 10, 20순
윤호순, 배호심, 강기현, 박혜선, 이해정4, 유한나, 허현아, 김봉선, 김은주, 이윤희, 이경아	정훈희, 이송훈,곽제승, 박병환, 서민호, David Chan, 박형, 구본우, 박형선, 강상원, 박영철, 우병수, 김경중, 박석근, Hermon Park	2부: 김기성 외 순원 3부: 조한교 외 순원
다음 주 주방 봉사 73, 74순	설거지 봉사 19, 20순	분리수거 봉사 11, 21순
박은영, 박재니, 박정은, 박혜진2, 임경식, 한은경, 박현실, 윤정원, 정은지, 한운호, 강주희, 이해정2	이상규, 김정탁, 옥원석, 임채린, 장영찬, 정운영, 한응호, 조한교, 김철성, 송항기, 정홍식, 오규남, 이수재	2부: Joshua Kim 외 순원 3부: 조강섭 외 순원

22.교우 동정

- 1)기도부탁 _몸이 아픈 성도들과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 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희자 집사, 박영남 장로, 강선자 권사, 김순복 권사, 이숙자 권사, 김선희 권사, 김순옥2 권사, 박신경 집사, 김예한 장로, 임말순 권사, Ellen Choi
- 2)출산예정자 _강대삼 집사(김초롱 집사) 가정
_Mehboob Metab (Sonia Metab) 목사 가정
_구본우(김명혜 집사) 집사 가정
_홍준표(백아영 집사) 집사 가정
- 3)출산 _이홍석 성도(이선아 성도) 가정이 득남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개

이원기 집사	979) 229-8989	바나바 한학진 집사
박소연 집사	979) 229-8902	바나바 원정희 집사

각부서 동정

토요안글학교-매주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시
어와나-어린이 제자 훈련 어와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길 교사분들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_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5분~9시 15분 _문의: 이은혜 전도사
조이채플-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자녀들을 위한 '조이채플'은 주일 오전 9시 제1교육관 조이채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_문의: 이소형 목사, 이유주 사모
새가족부-주일 2, 3부 예배 후 새가족 성경공부반이 있습니다. _장소: 새가족부실
카운셀링-부부 상담이나 자녀들 진학 상담, 약물 중독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우울증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Appointment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이야기 되는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_문의: 이 데보라 전도사
탁구 선교회.베드민턴 선교회-성도들의 건강과 친교 나아가 안 믿는 자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선교회 활동을 합니다. 탁구: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_문의: 신인목 장로, 베드민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_문의: 강상원 집사
Children Mission Center(어린이 데이케어 선교센터)-어린이 전도 기관으로 잘 운영되도록 교회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비의 등록서를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_대상: 13개월 이후~3살(3K 들어가기 전) _문의: 김지영 전도사
KPCB Music Mission(음악선교)-문의 및 등록: 한성혜 권사
1)String Class A (바이올린, 첼로): 매주 목요일 4:00~4:45 PM
2)Orchestra Class: 매주 목요일 5:30~6:30 PM
3)String Class B (바이올린, 첼로): 매주 목요일 4:45~5:30 PM
_문의·등록: 한성혜 권사(646.533.0484)
4)성인 기타 Class: 초급 2반 격주 목요일 7:30~9:00 PM(11월 2일~2024년 3월 7일) _문의: 문이준 집사
KPCB Sports Mission(스포츠 선교)-2024년도 1분기 스포츠 교실이 다음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축구교실-유치.초등부 2월 1일-4월 18일 매주 목요일(10주)
2)탁구교실-기초·중급 2월 2일-4월 19일 매주 금요일(10주)
3)농구교실-초·중·고등부 2월 3일-월 20일 매주 토요일(10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스포츠 교실)의 등록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선교에 함께 협력할 일꾼도 모집합니다. _수업문의: 김용현 목사 _등록: 한성혜 권사
유지부·중·고등부-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설길 교사를 찾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_문의: 김현정 전도사(유치부)정승호 목사(중등부), 오세웅 전도사(고등부)
시은 찬양대-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신 등록교인이면 다 환영합니다. _문의: 오익찬 집사(917.376.9095)
임마누엘 찬양대-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신 등록교인이면 다 환영합니다. _문의: 서근수 장로(917.292.9444)
권사회-5월 16일(목)에 펜실베니아 Lancaster County로 뮤지컬 “다니엘”을 관람하러 갑니다. 가지기 원하시는 분 교회 권사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4명 _문의: 강효정 권사(718.514.1271)
고등부-2월 18일(주일)~21일(수)까지 “Stay Different”이라는 제목으로 수련회가 열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_장소: Harvey Cedars Bible Conference, NJ _강사: Pastor David Yoon
새가족 순련성-이원기 집사 22순(순장 한학진 집사, 3부) 박소연 집사 76순(순장 최명숙 집사, 3부)

주요행사

에레미야서 강해

매주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8시

주일 저녁 중보 기도회

2월 25일(주일) 오후 6시

읍기 강해

매주 토요일 전교인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부활주일 감사예배

3월 31일(주일)
세례식 3월 24일, 성찬식 3월 31일

셔틀버스 운행 안내

주일마다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정차구역: 48 Ave.와 46 Ave. 사이 스프링필드 블러바드 선상 운행 시간: 오전 7시 40분~오후 3시(스프링필드에서 교회로 7:40, 7:55, 8:10..., 15분 간격) _문의: 서근수 장로, 정도영 목사 *노약자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주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능한 성도님들은 셔틀버스 정차구역 가까이 주차하시고 셔틀버스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모임 시 자녀들을 돌봐드립니다

2부:예배 후~11시 40분, 본당 찬양대 연습실-권해연 집사, 3부:예배 후~ 2시 30분, 제1교육관 유아부실-김미경 사모
제1교육관 유치부실-김현정 전도사

